심장은 빼서 따로 보관하자

(전도서 10:1~20)

1.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2.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3.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4. 주권자가 네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네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 받게 하느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심장은 빼서 따로 보관하자>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심장은 빼서 따로 보관하자'
요새 청소년들이 즐기는 게임 중에 '마리오 스토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인공인 마리오가 되어서 모험을 하는 롤플레잉 게임입니다. 이 게임의 제3장에 마리오를 대적하는 불사신 도가본이 나타나는데 도가본 성에 보스로 군림하고 있는 괴물입니다. 이 괴물은 자기의 심장을 꺼내어 도가본 성에 있는 풍차 속에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게임에서 도가본이 심장이 없을 때에는 방어력이 무한대이기 때문에, 주인공인 마리오는 먼저 도가본의 심장과 싸워야만 합니다. 어렵사리 열쇠를 구해서 풍차로 들어가 도가본의 숨겨진 심장을 물리쳐야만 합니다.
천신만고 끝에 도가본의 심장을 물리친다고 해서 심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약해진 심장은 도가본의 몸으로 돌아가서 합체합니다. 그러나 심장이 없을 때에 강했던 도가본은 심장이 돌아오자 더욱 기고만장해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주 나약하게 변해서 마리오에게 당합니다. 알고 보면 도가본은 커다란 덩치와는 다르게 엄청난 약골이고 겁쟁이였기 때문에 주변 유령들의 동네북이었습니다. 그러던 도가본이 자신의 심장을 빼냄으로써 무한한 방어력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심장을 빼내면 무한히 강해지고, 심장과 함께 있으면 엄청난 약골의 겁쟁이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도 이 게임 속 캐릭터와 똑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 심장이라는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마음은 곧 인격의 심장입니다. 인간의 마음 심장이 몸과 합쳐져 있을 때에는 못나고 약한 겁쟁이에 괴물 같은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이 마음 심장을 빼내

어서 잘 보관할 수 있다면 무한한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인간의 마음이 몸과 묶여있으면서 오감으로 접하는 것들에 대해 직접적으로 반응하는 상태에서는 겁쟁이가 될 수밖에 없고 능력이 제로 상태가 됩니다. 제로상태라는 것은 몸으로 접촉하는 것에 대해 마음이 반응하면서 강력한 힘을 발휘할 것 같지만, 마음이 분리되어서 따로 보관되어 있을 때에 나타나는 힘에 비하면 능력이랄 게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대체 심장을 어디에 보관하는가에 대한 것인데, 전도서는 전체적으로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해 아래와 해 위로 구분을 지었습니다. 해 위에 마음을 보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몸에 마음이 합체되면 심장을 가진 도가본이 됩니다. 몸이 접촉하는 것들에 대해 마음이 직접적으로 반응하는 상태가 되면 이 세상 마귀와 귀신들의 동네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몸이 비록 해 아래에 있을지라도 마음을 해 위에 보관할 수 있다면, 공중에 권세 잡은 자 마귀도 우리를 해치거나 농락하거나 동네북처럼 위해를 가할 수는 없습니다.
해 아래에 사는 동안에 마귀를 이기는 것은 에덴을 획득하는 것이고 견고한 바위와 같은 평강의 삶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마음을 빼내어 보관해야만 합니다. 몸이 접하는 것들에 직접적으로 반응하지 않을 정도로 마음은 몸과 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 이것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십자가를 보고 있는 동안에는 마음은 몸과 분리되어 해 위에 보관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심장과 분리된 도가본이 불사신이 되었듯이, 육체와 마음이 분리될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고백으로 시작한 전도서가 이제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우매함과 지혜로움에 관한 이야기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삶에서 우매함과 지혜로움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며 지혜로움을 선택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전도서가 말하고자 하는 우매함과 지혜로움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마음의 위치입니다. 마음이 해 아래에 있느냐 해 위에 있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육체와 마음이 합체된다면 우매함이 생겨나고, 반대로 도가본이 풍차 속에 심장을 보관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육체를 벗어나 해 위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보관된다면 지혜로움이 생겨납니다.
그렇다면 해 아래에 마음이 머무는 것이 왜 우매하다는 것일까요?
인간은 하나님 크기의 마음공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음공백을 가지고 해 아래에 머물러 있는 것은 해 아래에 있는 것을 빨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공백은 흡입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늘 채워짐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 아래에 있는 피조세계에서 마음을 채우고자 하는 것 자체가 우매함이고 심장과 합체된 도가본의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유약한 겁쟁이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겁쟁이가 되는 것은 곧 몸의 죽음을 두려워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몸이 있어야만 마음 채움 거리를 사냥할 수 있다고 믿기에 겁쟁이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죽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는 마음을 채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루 빨리 해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 가는 것보다 좋은 일은 없습니다. 죽음은 곧 졸업과 같습니다. 졸업은 빨리 할수록 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이렇게 마음을 두 가지 상태로 나누고 있습니다. 마음이 육신과 분리되어서 해 위에 있는 상태가 지혜로움입니다. 지혜는 단순히 지식을 더 가지는 것이 아닌 마음의 상태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18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 쉬지 말고 기도하라 / 범사에 감사하라…”고 한 것도 이와 같습니다. 해 위에 마음을 보내서 하나님을 뵙고 있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았던 제자들이 황홀경에 빠져서 기뻐했던 것과 같습니다. 항상 기쁜 상태에서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한 하나님의 판단이 몸이 있는 땅에서 실현되어 가기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하늘에 있는 동안에 육신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니 모든 상황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장을 빼내서 분리된 상태의 도가본이냐 합체된 상태의 도가본이냐는 것인데, 2절에서는 이것을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매함과 지혜로움의 차이입니다.

1절을 보면 ‘죽은 파리들이 향 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우매’는 추상명사이기 때문에 적고 많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적은 우매’라고 표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평소에 지혜롭게 살면서 명성을 날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순간 하찮은 일로 말미암아 마음이 해 아래에 있는 것들로 만족하려 하는 욕구와 기질이 몸으로 만나는 것을 빨아들이려고 합니다. 이 우매함으로 인해서 지혜롭게 살아왔던 인생 전체를 망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자인 솔로몬이 아는 가장 대표적인 예는 바로 아버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신실한 자였지만 밧세바를 범함으로써 많은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의 결과로 인해 태어나게 된 것이 솔로몬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솔로몬은 누구보다도 적은 우매함을 뼛속 깊이 깨달았기에 지혜와 존귀가 망가지는 것을 경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늘그막에 여자문제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인생에 큰 낭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본문에서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적은 우매함의 대표가 바로 다윗의 밧세바 사건입니다. 다

욋은 어린 목동 시절부터 신실해서 골리앗을 이기고 왕의 사위가 되기도 하였으며 전쟁마다 승리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억울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마음을 하늘에 두었기 때문에 지혜로운 행동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왕궁 옥상을 거닐다 목욕하는 여자를 보았을 때에 마음이 육신과 붙어서 흡입력을 발동시켰습니다. 이 적은 우매로 인해 다윗은 겪어 본적 없던 큰 고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은 한 순간이라도 마음을 해 아래로 내려 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해 아래로 내려오면 24시간 흡입력이 작동됩니다. 다윗이 밧세바에게 욕구를 느꼈던 것처럼 해 아래에 있는 것들 중에서 마음 채울 것을 찾게 됩니다. 이러한 순간적인 우매함으로 인해 인생전체에 결정적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마음과 몸이 합쳐진 도가본의 상태에서 배우자를 보면 배우자가 망쳐집니다. 자녀를 보면 자녀가 망쳐집니다. 사업을 하면 사업이 망쳐질 것입니다. 다 망쳐집니다.

2절에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생각하면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른쪽은 출애굽의 역사가 하나님의 오른손에 의해서 일어났습니다. 반면에 바벨론에 망한 역사가 하나님의 왼손에 의해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은총과 권능과 창조적 역사를 상징하는 한편 왼손은 선민을 향한 징계와 심판을 상징합니다.

우매자의 마음이 왼쪽에 있다는 것은 생각과 판단과 행동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지혜자는 마음을 하늘에 두고 하나님으로 기뻐함을 인생의 유일한 목적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러한 삶은 의도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오른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출애굽과 같은 역사를 일으키시고, 제2의 창조적 섭리를 발동하시는 영역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해 아래에서 마음이 몸과 합쳐진 상태는 잘 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왼손의 영역으로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반대로 마음을 해 위로 올려 보내서 몸과 분리된 상태를 유지한다면 성공과 형통을 추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오른손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우매함과 지혜로움이 부각되는 때는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순간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매한 자는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대수롭지 않은 상황에서조차 우매함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우매

함은 어떤 사건을 계기로 나타나는 결과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입니다. 마음이 어디에 보관되어 있느냐의 상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해 아래에서 마음이 몸에 합치되어 있다면 삶의 모든 순간이 우매함의 상태가 됩니다. 반대로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세상에 대하여 죽음을 통해 마음과 몸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가 바로 지혜자의 상태입니다.
또 4절을 보면 '주권자가 네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네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 받게 하느니라'라고 하였습니다. 다음 5절에서도 주권자라는 말이 나옵니다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서로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4절의 주권자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5절의 주권자는 이 세상의 임금을 가리킵니다.
'주권자가 분을 일으키셨다'라는 것은 적은 우매함으로 인해 삶이 하나님의 왼손의 영역에 들어가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다윗의 밧세바 사건을 상기해봅니다. 하나님을 통해 기쁨을 얻고자 했을 때에 지혜로웠던 다윗이 한 순간의 우매함으로 인해 밧세바를 통해 기쁨을 얻으려 했을 때에 삶은 고난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하나님의 왼손이 의미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 도망치려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 삶에 어려움이 처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깁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왼손의 막대기도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오른손이나 왼손은 하나님의 몸에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몸속에 하나님의 심장이 있고 하나님의 심장은 왼손으로 징계하시든지 오른손으로 제2의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든지 궁극적으로는 구원을 얻게 하는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기에 돌이키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지혜자든 우매자든 고통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심장을 풍차 속에 숨겨서 온전히 심장이 분리된 도가번의 삶을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인 이상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왼손의 영역으로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에 절대로 매가 아프다고 하나님을 피해 다니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자리에서 하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삶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 도망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처지가 바뀔지라도 해 아래에 있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해 아래에서 고통이 없는 처지로 변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해 위로 보내야만 합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그렇게 반복해서 피난하기를 노래했듯이 마음을 해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 보내야만 합니다.
'그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말은 전후좌우로 도망가지 말고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 가라는 말입니다. 이게 해결방법입니다.
돈이 없어서 고통스러울 때의 해결방법은 돈을 벌거나 빌리려고 나서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마련한다고 해서 고통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똑같이 해 아래에 있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우매함의 연속입니다. 대출을 얻어서 한 고비는 넘긴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그로 인해 더 큰 고비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해 위로 마음을 올

려 보내는 것입니다. 심장을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풍차 속에 심장을 감춘 도가본의 상태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당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해 위에 계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면 돈이 없어도 감사가 나옵니다. 돈이 없는 상황은 변함이 없으나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한 평강을 누립니다. 이것이 무적의 도가본의 상태가 되는 것이고, 바울이 말한 항상 기뻐함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해 아래에서는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해 위로 올려 보낼 때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비로소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럴 때에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가능해지는데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마음이 해 위로 올라가는 길은 주님의 십자가뿐입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몸과 합체된 상태에서 분리되겠다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기쁨을 찾지 않겠다는 것이고, 세상에 대해서는 어떤 만족도 구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기쁨과 만족이 없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주님과 연합하기 위한 결심이자 믿음입니다. 이렇게 주님과 연합하여 부활과 승천의 길을 따를 때에 하나님만으로 기쁨을 삼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세상에서는 기쁨을 찾지 않겠다는 믿음이고, 부활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승천하신 주님의 역사를 오늘 나의 사건으로 만드셔서 마음을 하늘로 끌어올려 주십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적은 우매함조차도 나타날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이 해 아래로 내려와서 몸과 합체될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풍차 속에 심장을 숨긴 도가본의 상태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속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대해 주님과 함께 죽었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늘의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려오실 것을 믿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로 몸으로부터 마음이 분리되어 하늘 위에 머무는 분리된 도가본의 상태로 세상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마음에서 망각함으로 인해 합체된 도가본의 상태가 되어 적은 우매함으로 삶을 곤경에 빠뜨리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